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
	배포일시	2019. 9. 19.(목) / 총 3매(본문2)
담당 부서	산업입지정책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근오, 사무관 정내정, 주무관 남순두 • 팀장 김은영, 사무관 박진형 • ☎ (044) 201-3674, 3699
보 도 일 시	2019년 9월 20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19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착공식 개최

동남내륙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나노융합산업 메카로 육성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지난 '17.06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'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(165만㎡)' 개발사업의 착공식이 9월 19일 개최되고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.
- 경남 밀양시 부북면의 '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' 부지 내에서 열린 이날 착공식에는 문승욱 경상남도 경제부지사, 박일호 밀양시장, 오채영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과 도·시의원 및 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하였다.
- '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' 개발사업은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('14.03.12.)에서 지역별 장점을 활용한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표하고, 21세기 고성장 첨단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목표로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('14.12.17.)에서 지역특화산업단지 개발 우선지구로 선정되었다.
-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'17.0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은 후 '19.06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, '18.12월 (주)한신공영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날 착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.

□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 823천㎡(사업부지의 50%)와 R&D용지 124천㎡(사업부지의 7%)를 계획하여 밀양시 내 부족한 산업용지 제공과 나노융합연구센터* 등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, 도시자족성 확보 및 고용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.

* 국가산단 부지내 위치(부지면적 124천㎡), 나노금형상용화지원센터는 既 입주(연면적 8,800㎡)

○ 특히, 나노소재, 나노전자, 나노바이오·의료 등 산업분야에 나노융합연구단지의 나노기술을 접목해 제품을 개선하거나 신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지역산업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“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나노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해 동남 내륙권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”면서,

○ “관련기관과 지자체 등이 공조하여 스마트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, 향후 관련산업이 확대되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□ 이번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나노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정내정 사무관(☎044-201-3678) 또는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
박진형 사무관(☎044-201-370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

밀양 나노융합 지역특화 국가산업단지 개요

지구 개요

■ 위치	경남 밀양시 부북면 일원	구분	면적(m ²)	구성비(%)
■ 면적	1,656천 m ² (502천평)	총계	1,656,024	100.0%
■ 총사업비	3,629억원 (용지비 2,160억, 조성비 1,469억)	산업시설	946,672	57.1%
■ 사업기간	2017 ~ 2024	주택용지	86,171	5.2%
■ 유치업종	나노소재, 나노전자, 나노 바이오의료 등	상업시설	-	-
		지원시설	128,610	7.7%
		주차장	16,551	1.0%
		공원·녹지	220,210	13.4%
		도로	224,601	13.6%
		저류지 등	33,209	6.7%

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

